



성산포항 카페리 장흥 노력항 복적

14일 오전 장흥군 회진면 노력항에서 제주도 성산항으로 운항하는 오렌지호에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다. 2000t급의 오렌지호는 평균 40노트(시속 74km)의 속도로 운항해 제주도까지 1시간50분만에 도착하는 쾌속선이다. <관련기사 12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10억이상 사업 전면 재검토

市 재정난에 긴급 돌입...자치구도 대책 마련 나서

광주시가 1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고, 각 실과별로 축소·취소사업을 선정하는 등 긴급재정에 들어갔다. 경상비와 축제 예산 등도 줄인다. 인건비 지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자치구도 체납세 징수 및 구유지 매각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련기사 3면>

14일 광주시는 "올해 예산 중 2100억원이 부족해다 버스 운전원 임금 인상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 증액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시설 투자 등으로 거액의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향후 시행될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우선 선정한 재검토 대상 사업은 ▲민속박물관 역사관 설립 및 리모델링(300억원) ▲시립미술관 리모델링(60억원) ▲비엔날레전시관~국립박물관 경관 회랑(corridor) 설치

(102억원) ▲용봉저수지 환경개선(27억원) 등 9건이다. 이들 사업 중 일부는 타당성이 떨어지고 시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관회랑 설치 사업의 경우 비엔날레전시관에서 국립박물관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이들 사업들은 예산이 풍족할 때는 가능하겠으나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들 사업이 취소 또는 축소될 경우 309억2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나아가 이달 말까지 각 실·과별로 축소·

축소 사업들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이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인건비·시설 운영관리비 등 경상비와 감치축제 등도 구조조정 대상이다. 지난해 25억원에 이어 올해 21억원이 책정된 감치축제도 대대적인 수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광주U대회 시설 설치 및 운영비로 올해 90억원, 2011년 129억원, 2012년 809억원, 2013년 923억원, 2014년 914억원, 2015년 225억원 등 3434억원의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며, 올해 준공영제 재정보조금도 356억원으로 지난해 288억원보다 23.6%(68억원) 증가하는 등 필수경비

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또 새 야구장 건립, 상무소각장 이전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도 예정돼 있다.

당장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광주시 각 자치구들도 하반기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으며, 체납세 징수와 구 소유 재산 매각 등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고정비용이 많은 탓에 예산 축소에는 한계가 있어 광주시에 교부금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건비 미지급 등 최악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번엔 양동시장 프로젝트

제8회 광주비엔날레 50일 앞으로... 시민 참여 행사 늘려

세계인의 미술 축제 제8회 광주비엔날레(9월3~11월7일)의 개막 50일을 앞두고 전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관련기사 13면>

특히 이번 비엔날레는 광주 양동시장을 작가로 참여시키는 도시재생프로젝트와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를 추진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또 강봉규·임남진·박태규·강선호·김동진·박성완·정다은씨 등 지역작가 7명이 참여해 국제화단에 광주 미술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게 된다.

14일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총감독이 지난 12일부터 광주에 상주하면서, 전시를 총지휘하며 전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오는 8월까지의 전시장 공

간 설계와 모든 작품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는 20일에는 이데사 헨델스(Ydessa Hendeles)의 작품 '데디베어 컬렉션' 1000여점 중 일부가 전시장에 첫 도착하는 등 작품 수송 작업도 순조롭다.

또 재단은 최근 전시공간으로 양동시장 일대를 선정했다. 비엔날레는 그동안 대인시장(제7회광주비엔날레), 양림동(제3회디자인비엔날레) 일대를 전시장으로 활용, "예술을 통해 도심의 낡은 공간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동시장에서 선보이게 될 전시는 시장상인과 작가, 관람객들이 어우러지는 참여형으로 진행된다.

광주지역 작가들의 참여도 대폭 늘었다. 당초 지난 5월 발표된 참여작

가 중 광주 작가는 1명뿐이었지만 최근 6명을 추가로 포함시켜 참여작가는 총 31개국 134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관람객 참여 행사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시민들의 작품을 공모해 전시장에서 선보이고, 광주지역 동네를 선정,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 지역 작가들이 전시장에서 시민들의 초상화를 그려 나눠 주는 등 이색 기획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한편 '만인보'를 주제로 광주비엔날레전시관,광주시립미술관 등지에서 펼쳐지는 이번 비엔날레에는 20세기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과 현대 미술의 아이콘인 제프 쿤스 등 스타작가들의 작품이 대거 선보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나라당 새 대표 안상수

최고위원에 홍준표·나경원·정두언·서병수

한나라당의 집권 후반기 2년을 이끌 새 대표 최고위원으로 친이(친이명박)계 핵심인 4인의 안상수 전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관련기사 4면>

또 4명의 최고위원에는 범친이계 4선인 홍준표 전 원내대표, 친이 중도성향 재선의 나경원 의원, 친이 핵심인 재선의 정두언 의원, 친박(친박근혜)계 3선의 서병수의원이 차례로 뽑혔다.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인 안 대표의 대의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 조사를 합산한 결과, 총 4316표를 얻어 3854표에 머문 홍준표 전 원내

대표를 크게 앞섰다.

홍 전 원내대표에 이어 나경원 의원이 2881표로 3위, 정두언 의원은 2436표로 4위, 서병수 의원은 1924표로 5위를 각각 차지했다. 친박계 이선현 의원은 1390표로 6위, 친박계 한선교 의원은 1193표로 7위, 친박계 이해훈 의원은 1178표로 8위, 친이 원외인사인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974표로 9위, 최선과 김성식 의원은 665표로 10위, 친이 정미경 의원은 446표로 최하위를 각각 기록했다.

호남 주자 중에서는 정두언 의원만 지도부에 입성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상수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오늘부터는 친박이고 친이도 없다"며 "한나라당이 모두 단결된 모습으로, 7·28 선거현장에서 달려가겠다"고 덧붙였다.

말기환자 연명치료 중단 가능

사회적 합의안 마련

임종 직전의 식물인간을 포함한 말기환자에 대해 인공호흡기를 떼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연명치료 중단에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연명치료 중단에 제도화에 필요한 쟁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종교계와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국회 등에서 18명의 인사들로 구성된 운영회

은 사회적 합의체 활동을 종료하고 주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사회적 합의체의 합의안은 지속적 식물상태에 있다 임종 직전인 환자를 포함한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특수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말기환자에 대한 수분이나 영양공급, 진통 등 일반적인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없도록 했다.

이런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심의기구로 복지부에 '국

가말기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의료기관별로 개별 연명치료 중단 사례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합의안은 또 말기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법상 성인이 작성된 담당의사와 상담후 2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원칙이지만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도 임증이 가능할 경우엔 인정되며 이런 의향서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다. <연희스

익교실업 56주년 (1954~2010)
민음, 소망, 사랑으로
커뮤니티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VENICE GLASS FANTASIA
글라스 판타지아 지상전
스키아본 기온 '치르체'(왼쪽)와 '볼카노'

용암이 분출한 듯 화려한 색상

이탈리아 베니스 대표 유리 공방 스키아본(Schiavon) 가문의 화려한 색상이 잘 드러난 작품들. '치르체'는 화산색의 향연을 표현했고, '볼카노'는 화산에서 분출한 용암을 형상화했다. 1000여 가지가 넘는 색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스키아본의 기술력과 디자인 감각이 눈에 띈다. 속이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유리 보온의 조합도 세련된 색감을 안겨준다. '베니스 글라스 판타지아'전은 오는 8월22일까지 광주문화회 회회관 전시장에서 펼쳐진다.

영산강살리기는 생명살리기입니다
맑은 강에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산강살리기입니다.

1. 영산강살리기 실천을 위하여
2. 영산강살리기 실천을 위하여
3. 영산강살리기 실천을 위하여

영산강살리기 실천을 위하여
영산강살리기 실천을 위하여
영산강살리기 실천을 위하여